

남도가 품은 나무이야기

道, 문화유산 80여그루 선정 책 펴내기로 조상의 삶 흔적보며 산림자산 가치 재조명

당산나무는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고, 재앙을 막아줬다. 동네 늙은이들에게는 한여름 너털한 그늘을 내줬고, 들일에 지친 농군에게는 막걸리 한 잔 들이킬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줬다. 또 서울로 떠나는 자식을 젖은 눈으로 배웅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외롭지 않게 든든한 배경이 돼 준 것도 늘 마을 입구 나무였다. 추억이 서린 전남지역 나무에 담

긴 아가자기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묶인다. 전남도는 “21세기 문화콘텐츠시대를 맞아 지역에 자생하면서 우리 민족 정서와 애환을 품어온 보호수의 흔적을 찾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호수는 역사적·생태적·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지칭한 것으로 도내 보호수는 3914그루다. 전남도는 이들 보호수를 대상으

로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 답사해 지역 주민의 고증 등을 통해 시군별 특색 있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가장 잘생긴 미인(미남)나무, 찜피언 나무, 문화유산 나무 80그루에 담긴 이야기를 책자로 펴내기로 했다. 이 책 속에는 아이를 점지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등 소박한 염원을 들어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길, 사진 등을 담고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과정 등도 풀여왔다. 나무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책에 곁들여졌다. 나주시 다도면 운흥사 갈나무는 사와 갈나무는 감 속에 작은 감이 또 들어 있는 ‘속감’인데, 이를 두고 내기를 걸었다는 부산 처녀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내기에 지고도 가전 제품을 사지 않은 부산 처녀가 나중

에야 약속을 지켜 애를 가질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담겨있다. 전남도 박화식 산림산업과장은 “자료의 보전·관리 및 효율적 활용과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숲과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조상의 숨결과 삶의 흔적을 더듬어보고 산림문화자산과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으



나주시 다도면 운흥사 갈나무

로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남도가 품어온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휴양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낭만’ 보다 ‘안전’ 8.9cm의 적설량을 기록한 24일 새벽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시는 23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5대의 제설장비, 염화칼슘 93t을 투입해 3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목포시 제공>

꽃게 금어기 놓고 입장 ‘팽팽’

농식품부 “5일 늦추겠다” vs 어민 “15일은 늦춰야”

꽃게 금어기 조정 협상(광주일보 10월 16일 10면)이 정부 기관과 어민들의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꽃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진도·목포, 서해5도 등 어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꽃게 금어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남해 일부 해역간 금어기가 서로 달라 산란기 개체 보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후변화로 꽃게의 산란 생태가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진도·신안해역 꽃게 금어기를 현재(6월 16~8월 15

일)보다 5일가량 늦추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지역 어민들은 어획고 증대를 위해 보름 정도(7월 1~8월 31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도 등 서해5도의 경우 정부안은 현행(7월 1~8월 31일)보다 10일 가량 앞당기려 하지만 어민들은 보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생태산란 연구분석 결과를 통해 서해북단 어장과 나머지 어장간 서로 다른 금어기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진도꽃게 어민회 관계자는 “꽃게는 6월에 가장 많이 잡히고, 어민들의

수산자원보호 의식이 높아져 알이 packed 암게는 대부분 방생하고 있다”면서 “환경에 따라 금어기를 지정해야 한다. 진도와 신안 해역 꽃게 금어기를 현행보다 보름정도 늦추는 것이 소득향상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꽃게 금어기는 개체가 성숙할 수 있게 꽃게 산란기 동안 조업을 금지해 어족 자원을 관리하려는 이유로 지난 1974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금어기는 6월16일부터 7월 5일 간으로 서·남해 전체가 같았지만 1996년부터 여러차례 달라졌다. 이후 2008년부터 서해 북단에 있는 3개 어장의 꽃게 금어기는 매년 7월1일~8월31일까지, 나머지 서·남해 어장의 금어기는 매년 6월15일~8월15일까지로 정해졌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경관행정 시군종합평가 영광군 올해도 최우수

영광군이 행정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굵직한 상을 휩쓸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의 ‘2012년 경관행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비 4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행정 기반구축 등 9개 분야 17개 항목 35개 지표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국토해양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12 도시대상’에서 국무총리 상을, ‘제1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11월 전남도 최초로 디자인 전담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위원회 구성하는 등 행정에 디자인을 적극 도입한 때문이다. 또 군은 자연경관 보존 및 단계별 방지를 위해 전국시군 최초로 공공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해 디자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정기호 군수는 “백수 해안도로 등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게 경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질 높은 물 공급 최선” 합평 K-Water 시무식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합평수도관리단(단장 이범욱)이 지난 20일 열을 앞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사업단은 2013년 캐치프레이즈를 ‘앞장서는 지방상수도! 미래를 여는 K-water!’로 정하고, 직위간 열린 토론을 통해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합평수도관리단은 시무식에 이어 연말까지 10일간 지역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과 겨울철 이상한파에 대비한 동파방지책 1000개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무안교육청, 해제중서 교육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진웅)은 최근 무안 해제중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학생·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충식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전남지부장을 초청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법률적 이해, 학교폭력의 원인, 피해자 및 가해자 지도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학생과 교사의 중간 가교역할로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

겠다”고 입을 모았다. 해제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폭력을 철저히 근절해 더욱 안전한 학교문화를 확립, 18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나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담양 무월마을 2년 연속 행복마을 대상

담양군 대덕면 무월마을이 24일 전남도 주관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시상금 3000만원)을 차지했다. 수북면 황덕마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11월 한달간 사업을 완료했거나, 한옥이 10호 이상 완공된 마을로서 정주기반시설과 소득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상황 전반에 걸쳐 평가했다. 대덕 무월마을(사진)은 마을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마을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해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 소득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



은 점수를 받았다. 또 수북 황덕마을은 전남도에서 지정된 유기농 생태마을로 마을내 시설하우스 등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농업 영농 집단화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www.yonhapnews.co.kr

주요 인물 한눈에... '2013 한국인물사전' 발간

재외 동포와 북한 인물까지 포함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 2만5천여 명의 정보를 담은 '2013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재외 동포와 북한 인물 등 국내외 각계각층 2만5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2013 한국인물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2013 한국인물사전'에는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주요 인사의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담겼으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4.11 총선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뜨는 별'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1천여 명의 재외 동포까지 전 방위로 범위를 넓혀 유명인의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사로는 2천여 명을 선별한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 보도 내용을 근거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주요 인사들과 전화 인터뷰, 이메일·우편 설문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인터넷 자료와 관련 문헌을 참조해 해마다 한국인물사전을 펴내고 있습니다.

2013년 판은 지금까지 한 권으로 발간하던 것을 수록 인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하 2권으로 나눠 펴냈습니다.

구입 문의: 서울(02)398-3990~3, 경기(031)238-2222, 인천(032)427-1238, 대전(042)521-9795, 광주(062)264-0064, 충주(043)225-5006, 전주(063)223-7952, 경남(055)281-0010, 부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